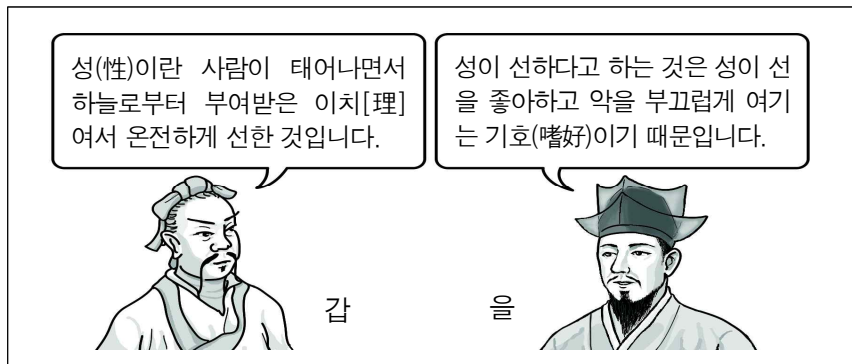




[6~7] 다음은 중국과 한국 사상가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기 > —  
 ㄱ. 갑은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수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의 성(性)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덕(德)을 선천적인 것으로, 을은 후천적인 것으로 본다.  
 ㄹ. 갑, 을은 누구나 노력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갑의 관점에서 다음 사상가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마음의 본체가 천리(天理)이며, 천리는 곧 양지(良知)이다.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비록 천만 가지를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 ① 사물의 이치는 오직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다.  
 ② 격물(格物)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③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인욕(人欲)을 버려야 한다.  
 ④ 사물에 있는 이치를 파악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⑤ 앎과 행동의 일치가 도덕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8.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실존은 선택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의 결정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가치 판단의 척도로 유용성을 중시하라  
 ② 보편적 법칙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라  
 ③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④ 자연의 필연성을 자각하여 운명에 순응하라  
 ⑤ 합리적 이성을 통해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라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무에서 나온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 따르는 준칙에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문제 상황>  
 A는 대학 진학을 위해 좋은 성적이 필요한 친한 친구로부터 시험 시간에 답안지를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너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렴.  
 ② 친구의 처지를 공감하여 생각해보렴.  
 ③ 부정행위는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렴.  
 ④ 친구를 도와서 얻게 될 만족감을 고려하렴.  
 ⑤ 부정행위는 비난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렴.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인간 삶의 목적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을: 인간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어떤 고통과 불안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학생 답안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경지에 대해 ㉠ 갑은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아파테이아(apatheia)를 제시하였고, ㉡ 을은 고통이나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ataraxia)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 갑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하였고, ㉣ 을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한편 ㉤ 갑, 을은 모두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 태도를 중시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쾌락이 곧 행복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으로 동일하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질적으로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p>
(나)	

- ① A: 옳고 그름을 행위의 동기로 판단하는가?
- ② B: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는가?
- ③ B: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의 조화를 추구하는가?
- ④ C: 쾌락은 한 가지 종류이므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⑤ C: 정신적 쾌락을 감각적 쾌락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12.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갑: 사람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것은 바로 그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입니다.</p> <p>을: 저는 선생님께서 '㉠'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의(禮義)는 배워서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를 통한 지도가 필요합니다.</p>
--

- ① 본성과 작위[偽]의 구분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 ②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③ 본성이 곧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인간 본성에는 선악(善惡)이 혼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인의(仁義)의 덕이 인간 본성에 내재함을 모르고 있다.

13. 다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여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집착하여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에 빠져서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 역시 일시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이런 욕망은 채울 길이 없다.

< 보기 >

- ㄱ. 모든 존재는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한다고 본다.
- ㄴ. 팔정도를 실천하여 삼독(三毒)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 ㄷ. 불성(佛性)을 획득하여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 ㄹ. 연기를 깨달아 만물이 독립적 실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을: 신은 신앙의 대상이며, 신의 존재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도덕적 덕에 의한 행복은 일시적이며,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① 갑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신학과 철학의 상호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신을 초월적 존재로, 을은 자연 그 자체로 본다.
- ④ 갑, 을은 종교적 덕과 도덕적 덕을 같은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신의 은총으로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고 본다.

15. (가), (나)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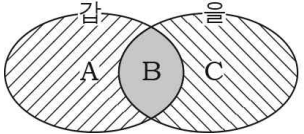
- (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보고 듣는 것이다.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백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 보기 >

- ㄱ. (가)는 국가 구성원의 정치적 평등을 중시한다.
- ㄴ. (나)는 통치자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한다.
- ㄷ. (나)는 (가)와 달리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강조한다.
- ㄹ. (가), (나)는 정책 결정자인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의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p>갑: 교(敎)를 배우는 자는 안을 버리고 바깥으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자는 인연을 잊고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하는데,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집착이다.</p> <p>을: 정(定)은 마음의 본체이고, 혜(慧)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분리될 수 없듯이 정과 혜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주장 B: 갑, 을의 공통 주장 C: 을만의 주장</p> </div>

- ① A: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② A: 깨달음을 위해 탐욕을 버려야 한다.
- ③ B: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 ④ C: 깨달음 이후의 점진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 ⑤ C: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7.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갑: 정(情)은 하나이지만 사단(四端)이다 칠정(七情)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p> <p>을: 사단의 정(情)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저절로 순수한 선일 뿐 악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理)의 발현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에 가리면 불선으로 빠진다.</p>
---

- 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사단은 이가 발하여 나타난 정이다.
- ③ 칠정은 기가 발하여 나타난 정이다.
- ④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연원이 같다.
- ⑤ 이와 기는 모두 형태도, 작용도 없다.

18.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둔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독립적 존재인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공동체는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그들의 관점에 대해 나는 '㉠'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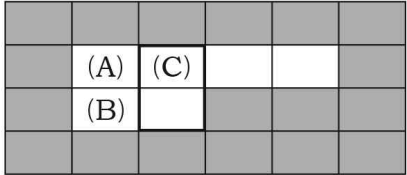
- ①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공동체가 개인들 간 합의의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인간의 개체성에 비해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p>갑: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道)가 우뚝하며,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아 그 기(器)를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 서양의 기를 행하면 오대주도 평정할 수 있다.</p> <p>을: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道)를 받았으므로, 나의 도는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東學)이다.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p>
---

- ① 갑은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에 반대한다.
- ② 갑은 유교를 서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 ③ 을은 의식 개혁을 위해 서양 종교의 확산을 강조한다.
- ④ 을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 ⑤ 갑, 을은 국난 극복을 위해 유·불·도 사상의 융합을 주장한다.

20.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 퍼즐의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인간은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p>
(나)	 <p>[가로 열쇠] (A):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노자의 이상 사회. ○○○○ 사회 (B): 『대학』의 8조목 중 하나로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의미.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 치국, 평천하</p> <p>[세로 열쇠] (C): …… 개념</p>

- ①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력 기구이다.
- ③ 가족과 시민 사회를 종합한 최고의 인륜이다.
- ④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 ⑤ 신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은 군주가 통치하는 조직이다.

<p><b>※ 확인사항</b></p> <p>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p>
--